

씨뿌리는 자의 비유2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네 가지 장소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길가는 너무나 단단해서 말씀이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돌썩밭은 그보다는 나은 상태입니다. 흙이 있어서 씨가 뿌려지면 곧 싹을 냅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돌이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그 열기로 인해서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와같이 돌썩밭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가면 은혜받았던 말씀은 곧 사라집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을 보면 여전히 욕이 나오고, 집에서도 배우자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합니다. 여전히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돌썩밭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돌썩밭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유혹들이나 어려움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가시덤불은 더 근본적인 유혹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염려와 재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돈은 우리의 생사의 여부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돈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로 그립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돈만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도 없고, 돈만큼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은행통장에 10억만 쥐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평안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얼마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내 귀한 돈을 포기해보는 훈련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다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열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삼 년밖에 못 산다에서, 한 번 넘어지면 삼년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을 때, 오래된 구습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6.9.12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하나님께서 왜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길을 잘못들게 하신 것도 아니고 더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10가지 재앙으로도 충분히 봤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이끄신 것은 이집트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0가지 재앙에도 이집트 정예부대가 여전히 살아남았고, 그대로 나두었다가는 언제라도 이스라엘의 후방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생활이 완전히 정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구약의 이스라엘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구역모임

1.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니까? 수혁이의 예시와 연관해서 생각해봅시오.

2.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주실 것 아닌가요?